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0.50원 상승한 1,134.1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전일대비 0.50원 상승한 1,134.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하락한 1,133.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은 오전 중 반등하며 상승 전환하였다. 오후 들어 1,136.7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이내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둔 관망세에 평소보다 적은 물량이 거래되었고 장중 수급에 따른 등락이 이어지며 전일대비 0.50원 상승한 1,134.1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4.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84.17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3.00	1136.70	1132.40	1134.10	1134.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81.63	1085.38	1079.93	1083.4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19.27	1331.41	1317.89	1327.0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5	-0.74	-1.96	-3.5
결제환율(수입)	0.25	0.48	0.44	-0.0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대선 결과 대기 속 달러화 약세...1,130원대 초반 등락 예상

금일 환율은 1,130원대 초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34.10원) 대비 2.75원 하락한 1,131.5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 대기 속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대규모 재정 부양안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를 강화시켰으며 위험선호심리 회복 영향에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일 환율은 하락압력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경계 및 결제 등 저가매수 유입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 대선 개표 경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6.00 ~ 1134.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38.4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75원 ↓
	■ 美 다우지수 : 27480.03, +554.98p(+2.0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3.4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1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